**토론수업을 위한 요약보고서**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 미래 과학이 답하는 8가지 윤리적 질문>

|  |  |
| --- | --- |
| * **과 목 명 :** | **사고와표현** |
| * **학 과 :** | **소프트웨어융합 대학** |
| * **담당교수 :** | **도애경 교수님** |
| * **이 름 :** | **김민석** |
| * **학 번 :** | **20195124** |
| * **전화번호 :** | **010-9463-7836** |

**목 차**

1. 챕터 제목

2. 핵심 키워드(3개)와 의미

1) 빅브라더

2) IoT

3) 시놉티콘

3. 내용요약 : 저자의 핵심논점과 논거를 중심으로 3단락~5단락으로 요약함

4.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이나 단락을 1가지 소개하고 이유를 제시

5. 책에서 아쉬운 점을 소개하고 이유 제시(1~2단락)

6. 독서토론 논제(2개) 제시

1) 텍스트 논제

2) 심화 논제

7. 참고문헌/ 참고인터넷자료/ 참고영상자료 출처

**챕터 제목**

시작하기에 앞서 책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 미래 과학이 답하는 8가지 윤리적 질문>에서 다룰 내용은 4장 빅브라더와 리틀시스터의 감시탑입니다.

**핵심 키워드 3가지와 의미**

이 책에서 제가 정한 핵심 키워드는 각각 빅브라더와 IoT, 그리고 시놉티콘입니다. 빅브라더는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해서 빅브라더가 모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즉, 정보 사회에서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를 지켜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oT는 사물인터넷 이라는 뜻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놉티콘은 ‘서로 동시에 감시한다’ 라는 뜻으로써 한쪽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서로를 감시함으로써 파놉티콘(모든 것을 감시한다)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내용 요약**

미셸 푸코가 쓴 책에 의하면 처벌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사회로 변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전과 달라진 감옥의 모습과도 같이 지금 시대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정보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SNS 활동이나 회사 개인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는 감시 사회의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이라 불리는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첨단기술 장비들이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킹당할 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유비쿼터스라고도 불리는 CCTV의 강철고리와 비슷하게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 감시 통합시스템(DAS)이 우리나라에도 개발되고 있는데 편리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쓰임이나 GPS 사용 등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낼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의 특성을 기업이 먼저 알아낼 수도 있다. 핀테크와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 현대인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사물 인터넷의 빅브라더는 정보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불특정다수라는 점에서 무섭다.

편리한 사물인터넷의 부작용은 결국 인권침해이다. 즉 우리는 편리한 이유로 사용하지만 실상은 사물인터넷의 정보를 독점한 이들이 감시탑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므로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파놉티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지만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기계 들로도 정보의 습득이 될 정도이다.

세계가 지식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국가의 정보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가가 정보권력을 남용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과거에 정보권력을 쥔 이들이 빅브라더라 하면 지금은 기업, 개인의 정보남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리틀시스터란 단어가 있다. 그러나 정보권력의 근간이 되는 정보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순기능은 편리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이용하므로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쓰는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박수공식은 C=M x O 라고 해서 범죄는 기회와 동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범죄동기는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고, 범죄기회는 감시를 늘리면 줄어든다. 또한 정보권력의 범죄기회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보호와 인권 둘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빅브라더와 리틀시스터에 맞서서 일종의 시놉티콘 효과인 역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해서 정보권력의 남용을 막아야한다.

**인상깊었던 문장**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문장은 “우리 일상에 대한 감시는 땅을 벗어나 이제 하늘로 진출했습니다. 바로 드론 때문입니다.”(권복규 외, 2015 : 174) 이다. 왜냐하면 전공도 이쪽이다 보니 드론이나 사물인터넷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람은 가만히 조종만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알았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상대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처음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드론은 이동이 자유롭고 크기도 작아서 놀이용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물건은 가볍게 옮기고 정보 수집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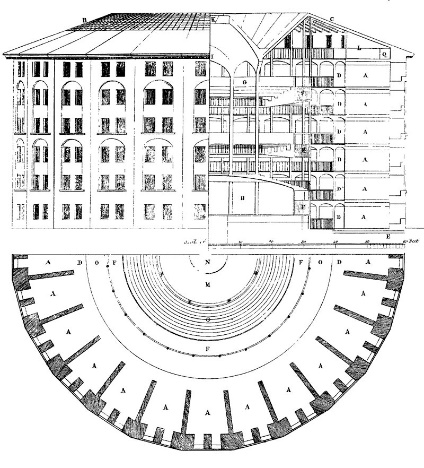
**아쉬운 점**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내용이 이리저리 튀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하나를 설명하다가 중간에 다른 것을 설명하고 다시 이어서 설명하는 식이 아쉬운 것 같다. 큰 주제(빅브라더와 리틀시스터의 감시탑)을 두고 안에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정작 빅브라더와 리틀시스터에 관련된 글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다. 또 리틀시스터는 빅브라더와 다르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단어인지 알려주지 않고 쓰는 게 어색했다.

**독서토론 논제**

1. **텍스트 논제 :** 저자는 빅브라더와 리틀시스터의 감시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타당하다.

역감시 시스템은 시놉티콘이라고도 한다. 파놉티콘은 그 반대말인데 제러미 벤담의 파놉티콘 청사진을 보면 가운데 원 부분에서 모든 수감자들의 방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우리의 CCTV나 IoT와 같은 보안이 취약한 전자기기도 중앙의 감시탑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그물망으로 분산시켜 우리를 감시한다. 또는 카드들의 정보가 중앙 센터에서 관리되어진다. 그런데 카드회사 해킹이 그 앱을 만들어준 업체에서 정보를 판 것이라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단체에서 해킹을 당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보만 잃어야 되는 건가 싶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1. **심화 논제 :** 지식 정보사회에서 시놉티콘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우리의 개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우리의 전화번호, 생일, 이름, 그리고 종종 프로필을 자기 사진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굴까지 기본적으로 노출되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동의한 서비스의 일부일 뿐,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하지만 이것들로 휴대전화 추적에, 버스와 지하철 타는 것과 어디 살고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까지 나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다면 무서운 일이다. 더 걱정되는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그 회사에서만 다루지 않고 사방에 퍼진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2017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해커와 한국인 3명이서 ATM 기에 들어있는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들을 오랫동안 모아서 국내외에 유통하고, 복제 카드를 만들어 쓴 사건이 있다. 이를 보면 카드 회사에서 아무리 보안을 중요시해도 해킹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카드 회사에서 직접 다른 곳으로 정보를 빼돌릴 수도 있으니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는 정보를 가진 쪽의 힘이 약해서 상관없었지만, 요즘은 지식 정보사회로써 우리의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가지고 남용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시놉티콘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를 다루는 곳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만 한다.

**참고문헌/참고인터넷자료/참고영상자료 출처**

* 1. 시민건강증진연구소,「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 <1984>보다 더하다!」,『프레시안』,2013.10.07.<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69430>(접속일 2019.10.19)
  2. 임기창,「국내 ATM 전산망 해킹, 北해커 소행… 한국인도 가담」,『연합뉴스』,2017.09.06.<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085000004>(접속일 2019.10.20)